

# 마라탕 중독과 균의 습격 ②



연운열의  
푸드톡

이번 조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수치가 나온 곳은 '상\*마라' 아주대직영점이다. 땅콩소스에서 대장균이 210/g 검출됐는데, 이는 기준치(10/g 이하)의 무려 21배에 달하는 수치다. '소\*마라' 가재울점의 경우도 땅콩소스에서 대장균이 470/g 검출돼 기준치 대비 47배를 기록했다. 그냥 "균이 나왔네" 수준이 아니다.

황색포도상구균은 소금 농도가 높은 환경이나 건조한 상태에서도 저항성이 강해 식품에서 수개월간 생존할 수 있고, 평균 3시간 후 발병해 구토·설사·복통·오심 증상을 유발한다.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는 냉장·진공 상태에서도 증식할 수 있는 저온성 세균으로, 임신부가 감염되면 유산이나 사산, 면역 취약자에게는 수막염·패혈증이 발생할 수 있다.

더 섬뜩한 대목은 따로 있다. 한 매장에서 조리 음식(마라탕)과 소스(땅콩소스)에서 동시에 균이 검출된 사례는 교차오염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

이 크다. 단순 부주의가 아니라, 주방 전체의 위생 시스템이 무너져 있다는 방증이다. 마라탕은 조리 후 바로 섭취하는 음식이고, 땅콩소스 역시 별도 가열 없이 먹는 경우가 많아 위생 관리가 미흡할 경우 소비자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문제를 단순히 특정 업체의 '불량' 탓으로 돌리면 안 된다. 구조적 문제를 봐야 한다. 마라탕 매장의 특성상, 수십 가지 재료가 동시에 진열·보관된다. 날것과 익힌 것이 뒤섞이고, 셀프 서비스 방식으로 손님이 직접 재료를 담는 과정에서 교차오염 위험이 상시 존재한다.

식약처가 2019년 마라탕·마라탕귀 음식점 63곳을 점검했을 때, 37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전체 매장의 60%다. 이번 조사에서도 20곳 중 3곳(15%)이 걸렸다. 수치는 줄었지만, 7년이 지나도록 구조적 문제는 여전하다.

땅콩소스가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유도 있다. 소스는 한 번 만들어 두고 장시간 상온에서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 적절한 냉장 보관과 제조 후 빠른 소진이 이뤄지지 않으면, 리스테리아균 같은 저온성 세균이 냉장 상태에서도 번식한다는 사실을 많은 업주가 간과하고 있다.

마라탕을 앞으로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다. 똑똑하게 먹자는 얘기가. 프랜차이즈 브랜드라고 무조건 믿어선 안 된다. 정기적으로 위생 점검 결과를 공개하고 인증을 받은 매장을 선호하는 것이 현명하다.

땅콩소스 상태를 확인하자. 소스가 실온에 오래 방치돼 있거나, 색이 이상하거나, 분리해 침하다면 먹지 않는 것이 좋다. 소비자들은 "음식을 받은 즉시 포장 용기의 파손 여부와 오염 상태를 점검하고 적절한 온도로 배달됐는지 확인하라"며, 배달·포장 식품은 바로 섭취하고 즉시 먹기 어려운 경우 냉장 보관 후 충분히 재가열해 먹을 것을 권고했다.

마라탕은 이미 '유행 음식'이 아니다. 탕후루가 한철 장사로 끝나 급격히 쇠락한 것과 달리, 마라탕은 2020년대 초중반을 기점으로 확실한 스테디 음식으로 자리잡아 꾸준한 소비가 이뤄지고 있다. 그만큼 위생 관리도 스테디하게, 꾸준하게,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100억~2000억 원 시장을 굴리는 업계가 아직도 '땅콩소스 기준치 47배 초과'를 용납하고 있다면, 그 성장은 모래 위의 성이다. 맛은 혀를 흥분시키지만, 위생은 생명을 지킨다. 마라탕 업계 전체가 이 기본을 다시 새겨야 할 때다. /기술사, 칼럼니스트

# 현대차, 차이나드림 '분골쇄신' 해야



기지수첩  
양성운  
(산업부)

글로벌 자동차 산업 변화는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 특히 세계 자동차 시장의 흐름은 전기차 출시 전후로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전기차는 전기모빌리티·자율주행 등과 결합해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세계 최대 자동차 전시회인 '오토차이나'는 전기차 시대의 글로벌 지형을 확인할 수 있는 한편,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현주소를 진단할 수 있다.

지난 24일 개막한 오토차이나는 말 그대로 전동화와 자율주행 기술의 가파른 성장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대표 기업인 현대차·기아가 중국 시장에서 고전하는 이유도 명확했다. 단순히 과거 사드 사

태로 인한 판매량 감소로 판단하면 큰 오산이다. 10년전과 비교하면 지리자동차그룹, BYD, 상하이자동차, 체리자동차, 샤오미 등 중국 현지 자동차 기업들이 보유한 기술 수준은 눈에 띄게 성장했다.

베이징 현장에서 만난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내연기관 시절에는 독일차 일본, 한국 순으로 중국 브랜드보다 높은 기술력을 선보였다"면서 "전기차 시대에 현대차는 중국 브랜드보다 낮게 평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현대차·기아가 중국 시장에 전기차를 출시한다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성공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실제 중국 기업의 성장은 무서울 정도다. BYD는 글로벌 전기차 1위 업체로 성장했으며 지리자동차를 비롯해 자율주행 업체들은 로보택시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현대차는 이번 오토차이나에서 정주영 창업회장의 정

신을 강조하며 아이오닉 브랜드 런칭과 아이오닉 V로 중국 시장 공략을 선언했지만 중국 기업을 넘어서는 전략과 기술은 보이지 않았다. 중국 자동차 기업들이 BMW와 아우디, 롤스로이스, 페라리, 람보르기니 출신의 유명 디자이너를 영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대차의 '디자인 차별화' 전략이 통할지 의문이다.

현대차가 2018년 평창에서 선보인 자율주행차를 체험할 당시만해도 글로벌 모빌리티 시장을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감이 있었지만 8년이 지난 현재도 그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현대차가 다시 한번 차이나드림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분골쇄신의 자세로 미비점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 고 정주영 창업회장이 강조한 '적당하리는 그물 속에서 오직 운만을 바라는 인간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말을 되새겨야 할 때다. /ysw@metroseoul.co.kr

##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4월 28일 (음 3월 12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위험한 상황이 가까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60년생 미래를 미리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72년생 조심해서 행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84년생 뜻밖의 사고를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49년생 주위를 잘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61년생 사회는 생각보다 냉정합니다. 73년생 밖에 일보다 집안에 무수일이 있나 먼저 살펴보세요. 85년생 자기 자신을 잘 파악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50년생 새로운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만나게 됩니다. 62년생 남성방향에 귀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74년생 많은 것을 기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86년생 더 이상은 잘 되지 않으니 쉬어주세요.



51년생 건강도 함께 생각해야 할 시기입니다. 63년생 구설수에 오를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75년생 재물이 아주 좋게 들어옵니다. 87년생 자기의 자신을 아는 자가 현명한 자입니다.



52년생 몸과 마음이 너무나 지쳐 있습니다. 64년생 가던 방향을 그대로 고집해야 합니다. 76년생 잠시 기분 전환이 필요합니다. 88년생 앞에 너무나도 큰 산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53년생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자금이 조금 부족합니다. 65년생 중심을 확실하게 잡고 집중하세요. 77년생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날입니다. 89년생 인생을 즐길 줄 알아야 할 때입니다.



54년생 부와 명예가 귀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66년생 기분 좋고 즐거운 하루를 보냅니다. 78년생 파란색 계통의 옷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90년생 마음을 가라앉히고 정신을 맑게 하세요.



55년생 마음이 흔들리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67년생 현실적이면서도 낭만적인 삶을 사세요. 79년생 너무 무게 잡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91년생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을 조금 더 열어야 합니다.



56년생 가벼운 마음으로 여행을 떠나세요. 68년생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80년생 사소한 고민은 하지 마세요. 92년생 새로운 모험심이 생기게 됩니다.



57년생 많은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됩니다. 69년생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81년생 아직 시기적으로 좋지 않으니 기다리세요. 93년생 일처리를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58년생 마음을 편히 가지고 여행을 다녀오세요. 70년생 옛 동료를 만나게 되니 고집을 피우지마세요. 82년생 새로운 일에 착수하는 것은 불리합니다. 94년생 친구의 도움을 청하도록 하세요.



59년생 많은 사람들이 좋게 생각하고 따릅니다. 71년생 원대한 것을 이루게 되겠습니다. 83년생 약간의 변화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95년생 말조심하고 신중하게 행동하세요.

# 김상회의四季

## 수(數)의 비밀 ①



소강절선생은 매화역수(梅花易數)를 창시한 인물이다. 송나라 때 사람으로 매화역수를 운명의 예측에 도입하게 된 배경엔 전해지는 얘기가 있다. 어느 날 제자들과 거닐며 매화나무에서 두 마리의 참새가 싸우는 모습을 보는데 마침 매화 가지가 땅으로 똑 떨어졌다. 선생은, 내일 저녁에 꽃을 꺾은 여자가 넘어져서 다칠 것이라고 했고 실제로 그러했다. 이로부터 매화역수(梅花易數)라는 명칭이 탄생했다. 매화역수는 수리역학이라는 별칭으로 생년월일의 숫자를 조합하여 운명의 총운과 대운 및 세운, 더 나아가 월과 일, 시까지 세분하여 예측하는 수리 역학의 효시가 된다. 선천상수학(先天象數學)을 이미 초년 시절부터 공부하여 경지에 이른 소강절선생은 "천하의 수(數)는 이치에서 나온다." 라고 천명했다.

육십갑자의 조합으로 운명을 예측하듯 1에서 9까지의 숫자만으로, 기가 막히게 운명 예측을 하게 된 것이며, 정확도는 놀라웠다. 이에 선생의 후손과 관련한 유명한 일화가 있다. 공부하느라 늦장가를 들었는데 첫 번째 아들이 태어날 것도 산가치를 뽑아 점을 쳐서 알았으며, 자손의 미래가 궁금했던 선생은 아들, 손자, 증손자 그렇게 계속 점을 쳐보니 5대손에 이르러 번고가 생길 운이었다. 후손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방책을 마련했는데, 만며느리에게 비단으로 쓴 함을 하나 내어 주면서 "살아가다가 집안에 무슨 큰일이 생기거든 이 보자기를 풀어보라. 만약 너의 대에 큰일이 생기지 않거든 네 만며느리에게 물려 주고, 그 만며느리 대에 아무 일이 없으면 다음 만며느리에게 물려 대대로 이 함을 전하라." 고 했다. 과연 5대손에 이르러 후손이 역적의 누명을 당하였는데 황망한 번고가 생기면 풀어보라 한 함을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잠시도 지체하지 말고 이 함을 형조 상서 집에 가져다 전하라." 하였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겨학원

# 스도쿠365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이드의 월드프렌즈를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이드의 월드프렌즈를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   |   |   |   |   |   |
|---|---|---|---|---|---|
|   | 8 | 9 | 3 | 1 |   |
| 4 |   | 3 | 9 |   |   |
|   |   |   | 2 |   | 7 |
|   | 7 |   | 2 | 6 |   |
|   |   |   |   |   | 8 |
| 2 |   | 8 | 5 |   | 1 |
| 6 |   | 7 |   |   |   |
|   | 5 | 8 |   |   | 6 |
| 9 | 2 | 4 | 1 |   |   |

|   |   |   |   |   |   |
|---|---|---|---|---|---|
| 3 | 4 | 9 |   | 7 |   |
|   |   | 5 | 7 |   |   |
| 2 | 6 |   | 3 |   |   |
| 9 |   |   |   |   | 8 |
|   |   | 5 | 9 | 2 | 6 |
| 7 |   |   |   |   | 9 |
|   |   |   | 1 |   | 5 |
|   |   | 3 | 8 |   |   |
| 3 |   | 6 | 7 |   | 2 |

QR 코드와 할인도서

|   |   |   |   |   |   |   |   |   |
|---|---|---|---|---|---|---|---|---|
| 8 | 2 | 1 | 9 | 7 | 9 | 2 | 8 | 6 |
| 9 | 6 | 7 | 8 | 2 | 9 | 1 | 2 | 1 |
| 9 | 8 | 2 | 6 | 1 | 2 | 8 | 7 | 9 |
| 6 | 1 | 2 | 7 | 9 | 8 | 9 | 8 | 2 |
| 7 | 2 | 9 | 1 | 2 | 8 | 6 | 9 | 8 |
| 8 | 8 | 9 | 9 | 2 | 6 | 7 | 2 | 1 |
| 2 | 7 | 8 | 2 | 9 | 9 | 1 | 6 | 8 |
| 2 | 9 | 6 | 8 | 8 | 1 | 2 | 9 | 7 |
| 1 | 9 | 8 | 2 | 6 | 7 | 8 | 2 | 9 |

|   |   |   |   |   |   |   |   |
|---|---|---|---|---|---|---|---|
| 2 | 8 | 2 | 9 | 7 | 6 | 8 | 1 |
| 9 | 1 | 6 | 8 | 2 | 8 | 2 | 7 |
| 7 | 9 | 8 | 6 | 1 | 2 | 8 | 2 |
| 6 | 2 | 9 | 1 | 7 | 9 | 8 | 2 |
| 2 | 8 | 9 | 2 | 8 | 6 | 9 | 1 |
| 8 | 7 | 1 | 8 | 9 | 2 | 9 | 2 |
| 9 | 6 | 7 | 8 | 1 | 2 | 9 | 2 |
| 8 | 9 | 7 | 2 | 2 | 9 | 1 | 6 |
| 1 | 2 | 2 | 9 | 6 | 8 | 7 | 8 |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             |                                 |                   |     |
|-------------|---------------------------------|-------------------|-----|
| 발행·편집인      | 이장규                             | 편집국장              | 윤휘중 |
| 인쇄인         |                                 | 중앙일보(주)           |     |
| 광고문의 / 독자센터 | 02)721-9851, 9826 / 02)721-9861 |                   |     |
| 일간 메트로      | 서울 가0206                        | 2002년5월28일 제5902호 |     |
| 일간 메트로경제    | 서울 가150111                      | 2017년3월09일 제2006호 |     |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상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